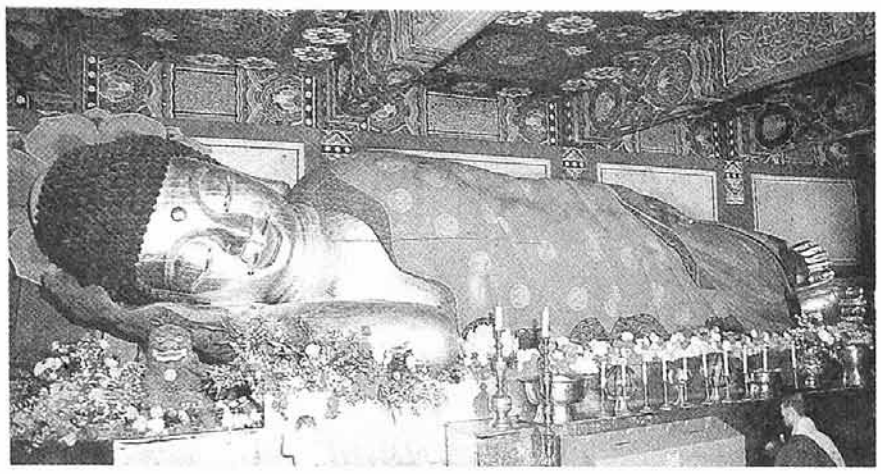


◇열반종 와우정사의 본존불로 모신 열반상. 길이 12m, 높이 3m에 이른다.

◇태국 미얀마 인도 등에서 보내온 불상. 현재 2천여구가 있으며, 1만불을 채우면 만불전에 모셔진다. 사찰측의 안내를 받아 참배할 수 있다.

지구촌 부처님 모셔 연화정토 발원

열반상·고행상·미륵보살상등 '명품 수두룩'

노천법당 5존좌불상등 현재 2천여구 봉안

용인 와우정사

경기도 용인 시내를 벗어나 원삼면으로 가다보면 사암저수지 못미치는 지점에 곱든재라는 자못 험겨운 고갯길이 나온다. 이 고개를 품고 있는 산이 연화산이다. 이곳의 어느 봉우리에서라도 올라서서 바라보면 사방으로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둥글게 이어져 있다. 마치 꽃송이를 연상케 해준다. 그런데 하필이면 연화산(蓮華山)이라 했을까. 선조들의 가슴에는 너나없이 불심이 담겼던 것일까. 이 고개길 초입에서 왼쪽으로 꺾어들면 바로 와우정사(법사 김해근)가 눈에 들어온다.

사찰 초입에 조성된 우람한 불두상이 예사로운 사찰이 아님을 예감케 해준다. 석가모니 불두상은 지긋이 눈을 감고 계시며, 마치 우리가 밟딛고 살아가는 대지를 몸으로 삼고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어른키의 3배에 가까운 크기와 섬세한 조성솜씨에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온다. 이 불두상이 일주문과 사천왕문의 역할을 한다.

국내보다 동남아서 유명

마침 초가을의 햇살아래 4만여평에 이르는 와우정사 경내 전체가 환하게 빛난다. 와우정사는 국내보다 외국 특히 동남아에 더 잘 알려진 사찰이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보내온 6백여구를 비롯 인도 티벳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에서 보내온 2천여구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높이 20㎝에서 크게는 3자에 이르는 부처님이 즐비하다. 재질도 금동 청동 유리 옥 나무 돌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장승과 같은 투박한 모양의 것부터 미얀마의 부처님처럼 온갖 보화로 장식된 정교한 조각 솜씨의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습의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가히 찬탄과 환희의 세계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행상의 부처님. 파키스탄에서 보내온 것으로, 나오로박물관에 모셔진 고행상을 원본으로 조각한 것이다. 덥수룩한 수염과 휼쭉한 배, 고행으로 드러난 갈비뼈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첫눈에는 끔찍하다는 생각마저 자아낸다. 수행의 고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있어 절로 고개가 꺾여진다.

◇사찰 초입에 조성된 어른키 3배의 불두상

각국의 부처님은 현재 요사채와 종무소로 쓰이는 건물에 임시로 모셔져 있다. 사찰측에 참배를 요청하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각국의 부처님을 모시게 된 연유는 2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2년 10월 한국에서 세계불교고승대회가 열렸다. 청담 경산스님을 비롯해 베트남의 틱탑차우 태국의 담마난다스님 등 각국의 고승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때 와우정사를 창건한 김해근법사는 이 고승대회의 홍보 극장을 맡았다. 이 대회가 계기가 되어 40여 나라들이 참여한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가 탄생되었다. 이때 태국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해 한국에 세계만불전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2천불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16국 가운데 유일한 불교국가. 전쟁을 겪은 한국에 부처님을 모셔 평화를 기원하자는 뜻이었다.

24년전 태국정부 제안

이곳에는 각국의 불상말고도 노천법당의 5존좌불상, 통일대종,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열반전의 열반상, 대각전의 고행상 순례로 이어진다.

5존불상은 노천법당에 모셔져 있다. 인도에서 들여온 황동 8만근으로 10년 동안 만들었다는 5존불상은 일정기간 비바람속에서 녹이 다 빠지면 대웅전을 건립해 모실 계획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불로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 좌상으로 모셔져 있다. 2m에 이르는 높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거니와 원만한 상호 또한 뛰어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위원인 미국의 코넬박사가 "현대에 가장 잘 조성된 부처님은 와우정사 5존불상이다"고 했던 찬사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대종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88서울 올림픽 때 개회를 알리며 울렸던 종이다. 부드럽고 긴 여운이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는다. 줄곧 취재안내를 맡은 김해근 법사는 금을 다량 함유한 것이 부드러운 음향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열반전으로 오르는 길목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좌대를 포함한 높이가 6m에 이른다. 국보 제78호 미륵반가사유상의 모습이다. 앞으로 쏠린 머리의 무게 때문에 지하로 땅을 파서 거꾸로 조성하고, 다시 세웠다. 10여년의 세월이 걸려 78년 조성에 성공했다. 좌대에서 올라온 연꽃봉오리에 문수동자가 앉아 미륵보살에게 합장하는 모습이 순례객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노천법당에 모셔진 5존좌불상. 인도에서 들여온 황동 8만근으로 10년동안 조성.

또한번 오래도록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은 열반전. 길이 12m, 높이 3m, 와불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열반상이 모셔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통향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다.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 사라수 사이에 누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쟁쟁하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타인을 등불로 삼는 일 없고, 또 법을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등불로 삼는 일 없이 수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열반상은 와우정사의 본존불이다. 와우정사는 대한불교 열반종의 총본산.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총무원장 김해근법사는 "열반종은 서기 623년 고구려 보덕지법화상께서 창종한 한국 최초의 종단으로서 해암해곡 삼장법사께서 중흥하시어 그 전통과 법맥을 1400년간이나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총본산인 와우정사에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들여온 석가모니 진불신사리를 봉안하고 있으며, 상좌부의 팔리어 대장경과 산스크리크어 장경 등도 봉안되어 있어 승려와 함께 불교의 삼보가 다 봉안되어 있는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와우정사는 여느 사찰에서와는 다른, 언뜻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이게 하는 당우들과 부처님들이 계신다. 열반전의 열반에 든 부처님이 그랬고, 대각전이 그렇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열반전 오른쪽 능선에 동굴로 조성되는 대각전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유례가 없는 당우이거니와 부처님 고행상이 모셔져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30평 남짓한 동굴입구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각전의 고행상은 파키스탄 나오로국립박물관의 고행상을 원본으로 삼아 백옥으로 조성했다. 대각전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여느 사찰의 선원처럼 엄격한 자기절제를 생명보다 무겁게 여기는 수행처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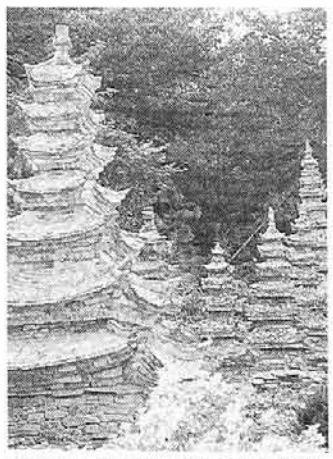
각국에서 보내온 불상은 연화산의 정상 아래 5백여평의 부지에 조성된다. 지금은 진입로와 터만 닦아놨을 뿐이다. 김해근법사는 "우리 대에는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줄 불사를 시작했을 뿐 완성은 언제일지 몰라도 후대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다. 연화산의 연꽃봉오리들이 멀리 붉고 푸른 석양빛에 그 윤곽을 더욱 또렷히 드러내고 있다. 땅거미가 몰려오고 와우정사 불빛이 밝기를 더해간다.

용인=정성운 기자

남북평화 기원 '통일의 탑'

인도·백두산등 세계 곳곳 돌로

광운스님 8년째 홀로 조성



◇하찮은 돌멩이가 모여 통일의 염원을 품은 '통일의 탑'으로 솟아올랐다.

와우정사의 또다른 명물은 '통일의 탑'. 전국 사찰의 큰스님들과 신도들이 가져온 돌멩이로 조성된 탑이다. 주먹만한 것에서부터 어른 머리 크기의 돌멩이 수십만개가 탑재로 쓰였다.

부처님 4대성지와 불상기증국의 돌멩이는 물론 백두산에서 가져온 돌과 무너진 베를린장벽의 한 귀퉁이도 들어 있다. 통일기원의 뜻을 담는다는 소식을 듣고 각계에서 보내온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고상돈씨도 그곳의 돌멩이를 기증했다. 3~9층 탑 7기 가운데 마지막 7층탑이 조성되고 있다.

김해근법사는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마침내 우뚝 솟은 탑이 서듯이 통일도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80년부터 돌을 모으기 시작해 최초의 탑을 쌓기 시작한 때는 88년. 광운스님(68세)이 8년째 탑 쌓기를 하고 있다. 1년에 1개씩 쌓은 셈. 설계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기단부터 층수에 맞게 네모낳게 돌멩이를 쌓아 기초를 만든다. 그 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 층의 지붕을 이어간다. 시멘트로 붙이는 것이 아니다. 전통한옥의 결구기법처럼 돌멩이를 일일이 끼워맞춘다. 그래야 땅의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 탑의 1층을 조성하고 있지만 광운스님은 "이 탑을 모두 쌓기 전에는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생에는 명산고찰을 찾아다니며 큰 바위로 탑을 쌓고 싶다는 발원을 매일 부처님께 기원하지요.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탑 쌓는 것 밖에 없어요."

하찮은 돌멩이 하나가 생명으로 변화해가는 것처럼 통일도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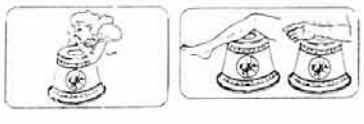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생리통,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시술, 혈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근육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변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찜질하십시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리놓고 황토, 쑥뜸질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됐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점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태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경,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신탁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성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1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본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 황토방에서 불땐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체(陶磁體)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뻗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4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5 내열탕기에 약쑥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받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앗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꼽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83 노원:942-6430 마포 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평:(032)516-9846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대전(042) 중구:222-4966 서구:534-4211 동구:253-6446
경남지역: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전주:(0652):75-6733
경북지역: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